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족예배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인도: 가족 중 어른

- 묵 도 다함께
- 성 시 시편 100편 1-5절 인도자
- 찬 송 460장 다함께
-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신명기 16장 13-17절 인도자
- 메 시 지 “함께 즐거워하라” 인도자
- 찬 송 305장 다함께
- 주 기도 다함께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3절-17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다. 최근 사회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삭막해져 가면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1.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15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추석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한 해의 소출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는 추석이 될 것이다.

2.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고 하였다(14절).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족들 중에 외롭게 있는 이들과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3.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켰다(13절). 그 이레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웃과 함께 하는 중추절(仲秋節)

대치1동 및 형편 어려운 성도 위로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이번 추석(중추절)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였다.

대치1동에 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구제현금을 전달하고, 주무재활원과 나사로의 집 등 장애인 관련 기관 2곳에도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구제현금을

전달하며 위로를 하였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각 교구담당 목사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형편을 돌아보고 구제현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석에 함께모인 가족들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모범을 1면에 게재하였다.

메시아 합동 연습

- 9월21일(주)부터 시작 -

올해 찬양대 헌신 예배일인 12월 1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가 헨델의 '메시아'로 합동 헌신예배를 드린다.

연합찬양대는 독창과 합창 그리고 기악이 어우러지는 헨델의 메시아 중 제1부 예언과 탄생 부분을 찬양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 되는 이 연합찬양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모든 찬양대는 악보가 준비되는 21일 주일부터 연습에 임

하며 11월 15일(토)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합동 연습을 가질 예정이다.



순례자 촉탁기자 오리엔테이션

21일(주) 오후 3시30분 - 웨스트민스터 홀

각 부서 촉탁기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21일(주) 오후3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순례자의 편집방향과 방법을 듣고 앞으로 촉탁기자로서 순례자 편집에 참여하는 방법과 원고작성 예 등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순례자 촉탁기자로 선발된 이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알려지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무지개어린이합창단 제2기단원선발

-전형: 19일(금) 오후 5시 501호 -

무지개어린이합창단 2기 단원을 모집한다. 전형은 9월 19일(금) 오후 5시 501호에서 ① 동요나 어린이 찬송가 중 1곡 가창, ② 음악소양 평가(단순한 악보보고 계명창 하기, 듣고 따라 하기 등)를 통해 할 예정이며 2기는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신입단원을 선발한다. 원서배부 및 접수는 교회 1층 사무국에서 한다.

많은 서울교회 어린이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연습은 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이다.

스데반회 체육대회

10월3일(금) - 아가페타운에서

우리교회 제 1,2 스데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10월3일(금)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초청 범위는 교역자, 당회원, 제 1,2 스데반회, 피택집사 가족이며 당일 오전 6시5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고등부 강남노회 찬양대회서 대상 수상!!

9월 6일(토) 서울강남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21회 기독교 찬양대회에서 우리 서울교회 고등부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다.

영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청담교회를 비롯한 1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짧은 연습시간에도 좋은 성적을 내어 더욱 의미 있는 상이 되었다. (한상혁: 고등부 촉탁기자)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증하는 의류 및 생활용품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

천국시민양성 - 신혼가정부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가정'

노창훈, 이화용 가정
(1교구, 신혼가정부 회장)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008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168,000쌍이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통계는 같은 기간 65,000쌍이 이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급격한 이혼 증가는 가정의 위기가 서구 선진국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행복한 가정',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지만 위 통계를 보면 그리 만만한 목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초반의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결혼생활의 시작인 이 신혼기간에, 30여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함께 만나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어떤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이후 30년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러한 신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보 부부들만을 위한 "신혼가정부"가 있습니다. 신혼가정부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3시30분, 702호에서 모여 이규정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신혼의 공통주제인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생활, 직장과 가정의 조화, 바람직한 재정관리 등 초보 부부들이 부딪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가정예배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 년 두 차례의 수련회와 노방전도, 다락방 모임, 조별 성경공부 등을 통해 회원가정들의 영적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혼가정부는 결혼 후 출산 전에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멈출 수 없는 영적성장, 여기, 서울교회 신혼가정부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위에 든든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신혼가정을 초대합니다.



추석과 기독교 문화

우리나라의 추석에 초막절의 의미를 잘 부여한다면 추석을 기독교 문화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

서명철 목사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로 음력 8월 15일에 지킨다.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중추절(仲秋節)이란 가을을 초추(初秋), 중추(中秋), 종추(終秋) 3달로 나눌 때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추석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초막절(草幕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의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올라간 후 예수님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나중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다.

본래 이 명절의 명칭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기 전에 수장절(收藏節)이라고 불렸다. 가을 추수기에 곡식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였다(출23:16). 그래서 출애굽기 34:22에서 "가을(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다. 이 수장절이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었으며,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이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농경사회에서 연중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수장절에 7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된 후로부터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초막절이라고 하였다. 레위기 23:34은 "일곱째 달 열 닷새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하였으며, 23:42-43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장절은 단순히 그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또한 초막절로 지켜졌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초막절의 의미가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추석에 초막절의 의미를 잘 부여한다면 추석을 기독교 문화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가위에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먹으며 한 해 동안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다면 우리의 추석이 성경적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

한가위에 하나 된 한 가족



김미선집사 (11교구)

예로부터 민속명절로 지켜온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며 풍요의 계절을 읊어왔다. 그 내면에는 전래된 풍습과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장으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질적인 면이 드러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가치관에는 상충되는 것을 보게 된다.

15년 전에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전제조건이 '세

례교인'이라는 미래 시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우선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이미 세례교인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시부모님 두 분이 계시는 집으로 가족이 다 모이게 된다. 삼대가 다 모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4남매의 자녀까지 17명의 대가족이기에 부모님은 정신을 잃을 정도이다. 사랑하는 자녀손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고 피곤했던 며칠 며칠의 모든 노고도 다 한꺼번에 날려 보낸 것을 읽을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좀 특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애뒀한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감히 그 크신 사랑을 어디에 다 비할 수 있을지 상상을 넘어선다.

은 가족이 둘러앉아 목사님의 예배모범으로 감사예배를 드리며 주어진 설교말씀에 가족 사랑을 더 얹어서 말씀하시는 시아버님의 표정과 이심전심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가족애를 느끼곤 한다.

혹시 가족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의 향기로 구원의 팔을 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길 ...



아버지

신동기 권사 (12교구)

그 자리에 그렇게 빈 손 들고 혁혁히 서 있는 가난한 겨울 산 울리는 큰기침에 산줄기 부풀려 산맥을 이루고 눈보라 몰아치면 가슴으로 하늘 껴안은 눈부신 겨울 산

산 아래 권 하얗게 바래져 불거진 뼈 당신의 팍팍한 무릎 기슭에 앉아 흐르는 눈물 밭 적시며 무릎 꿇은 어린 나무들 하늘 퍼 담고 수련거된다

생의 한복판 빛과 어둠 경계에 떨고 있는 창백한 겨울 산 내 몸 불살라 한줌의 재가 될지라도 도말 되지 않는 죄 땅이 무너져라 몸부림치며 통곡하던 당신

오직 그 피로만 이렇게 찬란히 터트리는 생명의 결정(結晶) 구원의 기쁨인 것을!

해는 지고 이어졌다 떨어지는 나직한 침묵 겨울 산 접어지며 영원한 문 열린다

새 옷 지어놓고 기다리는 하늘 미소에 온 땅이 진동하고 새빛으로 푸른 나이, 새 옷 입고 환하게 웃는 희디흰 당신 아버지!

오늘도 그 빛 새벽달 되어 우리 심장에 하얀 피로 흐르고

나의하나님

자유롭고 복된 땅, 대한민국으로!

김정덕 성도(5교구)



먼저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1998년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5년간 살다가 중국공안에게 붙잡혀 2003년에 북한으로 복송되어 1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2004년 10월에 재탈북하여 2006년 4월에 대한민국에 온 새터민 김정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2003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복송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가서 신문 받는 곳이 바로 북한의 정치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 거기에서 제일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국에 가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가, 교회와 관련된 책을 본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순간 친구들이 경찰에 알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얼마나 병원에 누워있었는지 어느 덧 제가 손, 발 끝에서부터 맥을 거두더니 그 다음 위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 이제는 내가 죽는 순간인가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굶어 살려주세요소서. 저는 죽더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죽겠습니다. 죄 많은 이 몸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진정으로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소서. 그러자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아라' 라는 말씀에 저는 눈을 떴으며 일이나 7일 만에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으니 오늘의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0여년 공산체제하에서 오직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충성 다해왔던 그들은 순진한 백성들을 꾀어 자기들의 정치적 노예로 만들었고, 굶주린 백성들 하나 지켜주지 못해 300만 명을 굶겨죽이고 20만 명의 백성들을 타국에서 해매게 만들어 놓았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수난당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병이 들세라 손잡아 자유대안으로 불러주시었습니다.

저는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오늘의 평양 만수대 언덕 위에 서 있는 김일성 동상은 바로 옛 평양교회가 서 있던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자기들의 동상을 세웠다고 생각해보니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여 버림받은 저 북한 땅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자유롭고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탈북자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시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하나님의 몸 된 서울교회에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저의 영적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소프라노 김영옥교수, 메조소프라노 김기순교수와 함께 'Pie Jesus' 외 2곡으로 찬양을 드린다. 김영옥교수는 추계예술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에서 수학하였고, 오페라에 적극 활동 중이며, 김기순 교수는 연대음악대학원을 졸업 역시 이태리에서 수학한 후 오페라 등 다수의 음악회에 출현하고 있다. 오늘 찬양은 각각 독창과 함께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피아노 반주에는 서울예고를 졸업 후 독일에서 수학한 이정신 교수가 맡는다.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9월18일(목) 복음동지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취임: 이현주 집사 (7교구) 우리투자증권(주) 경영전략본부 이사 취임 T 768-7489
- 전화번호 변경: 홍은심 성도(11교구) 010-8958-8163
- 주간식당 봉사: 빌립선교회 (9.14) 안드레선교회(9.21)
- 금주의 식사 : 김세재 장로 이운진 권사 가정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2.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3. 아가페다운 건립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